

# 2011 World Conference on Veterinary Education

지난 5월 프랑스 리옹 수의과대학에서 수의학 교육에 대한 국제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Veterinary Education)가 개최되었다. 2011년은 세계 최초 수의학 교육기관인 리옹 수의과대학 설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그 의미를 더하는 자리였다.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OIE Day 1 Competencies와 세계 각 수의과대학의 커리큘럼 개선 방안 등이 토론되었다. 모든 발표문을 요약할 수는 없으나, 본고에서 수의학 교육의 중요한 흐름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그림 1. 끌로드 부젤라 기념 우표와 스탬프>

◀ <그림 2. 리옹 수의과대학 창립자, 끌로드 부젤라(Claude Bourgelat, 1712-

## 국가 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수의사의 핵심역량 (Core competences) - 문제는 사람이다

최근 의학 및 수의학 교육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량중심 교육이다.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라는 전통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실제로 졸업생들이 수의사로서 사회에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와 수의사 집단 내부로부터 끊임 없이 제기되어 온 결과라고 하겠다. 수의학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각 지역별,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던 논의들을 전 세계적으로 모으고자 하는 노력은 2년 전인 2009년 제 1차 국제수의교육학술대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구성된 OIE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국가수의서비스 분야에서 수의사의 역량을 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OIE ad hoc Group of 의장인 Dr. Ron DeHaven(AVMA, CEO)은 위원회

1) REPORT OF THE MEETING OF THE OIE AD HOC GROUP ON VETERINARY EDUCATION, Paris, 15~17 December, 2010



천 명 선  
(주)미래세움  
smash93@hanmail.net



가 논의한 최소 역량(Minimum competences, Day 1 competences of National Veterinary Service Level)은 종사하는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 소질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다시 그 깊이에 따라 General/Specific/Advanced competences로 나누었다<sup>1)</sup>.

최근 수의공중보건학 분야의 이슈는 ‘One Health - One Medicine’ 이다. 이런 측면에서 OIE의 Day 1 competence은 ‘One Health’ 개념의 공중보건학 교과과정을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시드니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작업에서 비교된 바에 의하면, OIE의 Day 1 competences는 미국과 영국에서 수의학 교육을 위해 마련한 Core competences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sup>. 최근 OIE가 교육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제적인 정책과 공중보건 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능력을 지닌 인재의 배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수의학 교육에 관한 국제 학회나 조직은 그 활동이 미미한 상태다. WCME에서 의결된 수의학교육에 대한 권고사항은 OIE의 이름 하에 배포된다<sup>3)</sup>. 물론 이들의 Core competences나 권고사항들은 강제 규정이 아니며, 각국의 수의과대학은 스스로의 환경과 수준에 맞게 이들을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었던 동물 질병 관련 사회적 이슈를 고려할 때, 공중보건 분야의 수의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의과대학의 교육과 수의사의 CPE(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차원에서 OIE의 Day Competence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One Health 측면에서의 교육을 위해 시도되고 있는 Inter-Professional Education(IPE) 프로그램도 눈여겨볼만 하다<sup>4)</sup>.



▲ <그림 3. WCME 학회 모습>

2) Rosanne Taylor, Veterinary education for global graduates, 2011 WCVE 발표문 참고.

※ 학술대회 발표문은 <http://www.wcve2011.org/> 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3) Resolutions of the 2nd Global Conference on Veterinary Education Lyon, France 13~14 May 20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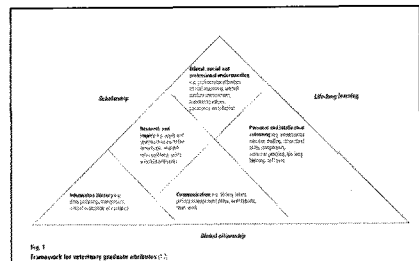
4) Gaë Lamielle, Inter-Professional Education-Training veterinary students in a One Health context, 2011 WCVE 발표문 참고.

### 교육과정 개선\_방법은 다양하다

90년 대 이후로 각국의 수의과대학은 교육과정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기존의 전통적이고 경직된 교과과정에 변화를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WCME 2011에서 발표된 세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이 변화의 키워드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시드니 수의과대학 - Outcome-based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와 통합 교과 과정

최근 수년간 호주 수의과대학들은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들의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학회에서는 호주 수의과대학 학장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Outcome-based education의 과정과 성과가 발표되었다. 최근 국제화 되고 있는 호주 수의학 교육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의 학습목표는 물론이고, 영국 왕립수의과대학(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의 Day 1 competencies와 미국수의과대학협회가 설정한 Core Competencies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수의학 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OIE의 Day 1 competencies를 적용했다. 이렇게 재편성된 학습목표(Learning Outcomes)는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시드니 대학의 Taylor 학장과 학회 중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Outcome-based 교과과정 도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육학 전문가와의 협조를 통한 교수진의 훈련과 무리 없는 순차적인 적용이 중요하다는 충고를 해주었다. 특히 통합교과목의 경우, ‘동물 전염병’ 등 특정 주제를 설정해 기존의 교과과정 내에서 시험적인 영을 하고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그림 4. Framework for veterinary graduate attributes<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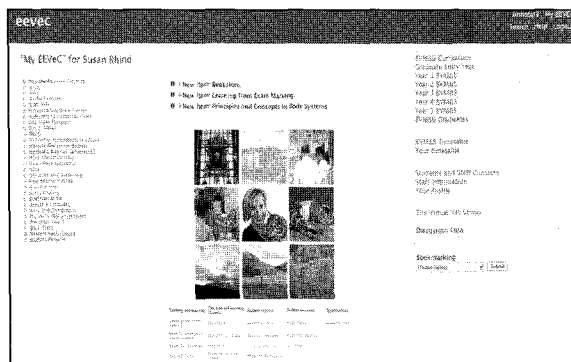


▲ <그림 4-1. 시드니 대학 Taylor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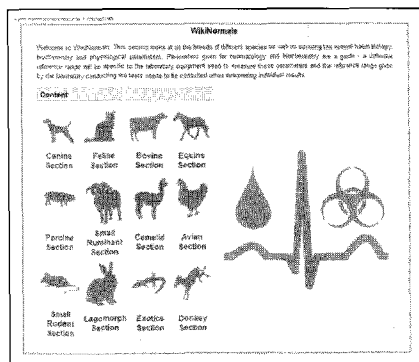
5) R.M. Taylor, Defining, constructing and assessing learning outcomes, Rev. sci. tech. Off. int. Epiz., 2009, 28 (2), 779-788

2) 에딘버러 수의과대학 - 교육 공학적 접근, 교육을 위한 새로운 매체<sup>6)</sup>

수의학 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교육 피드백을 든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과의 소통은 쉽지 않다. 에딘버러 수의과대학은 이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익숙한 매체를 통해 해결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e-TL을 교수방법론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학교마다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교수자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미 이런 방법이 낯설지는 않다. 최근 평생교육 (Independent Lifelong Learning)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국 수의학 교육의 흐름을 반영하여 에딘버러 대학은 EEVeC(The Edinburgh Electronic Veterinary Curriculum)을 발전시켰다. EEVeC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 창구가 다양화되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 자료와 임상사례와 진료 과정을 담고 있어 향후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의 수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WikiVet은 학생과 수의사, 수의대 교수자 모두가 학습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지식 데이터 베이스이다. 접근성이 높고 누구나 사용자가 되고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는 Wikipedia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철저한 동료 검토 (Peer review)나 충분한 정보량 축적이 관건이다.



▲ <그림 5. EEVeC 사이트 (<https://www.eevet.vet.ed.ac.uk/>)>



▲ <그림 5-1. WikiVet>

6) Susan M Rhind, Enhancing Veterinary Education with Technology: Experiences from Edinburgh, WCVE 2011 발표문 참조.

3) 노팅엄 수의과대학 - 교육 모듈의 개발, 현장과 교육의 연결<sup>7)</sup>

노팅엄 수의과대학에는 Teaching Hospital 시설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임상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5학년에서 이루어지는 Clinical Practice Module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임상 실습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있다. 단순히 견학 수준의 현장 학습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잘 짜여진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학교 내의 교수진과 외부의 임상 수의사 간의 강한 팀웍이 요구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효과적



▲ <그림 6. Personal & Professional Skills Module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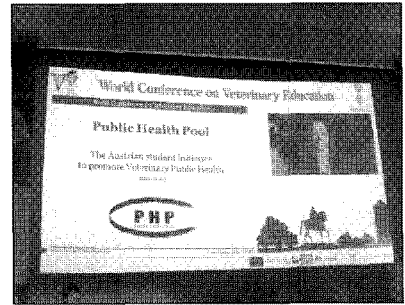
으로 운영되고 있는 또다른 교육 모듈로 Personal & Professional Skills Module을 들 수 있는데 Communication Skill, Reflective Skill, Professionalism, Ethics, Business and Management 등의 내용을 포괄하며 다양한 교육방법이 활용된다.

교육과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요구

WCVE 2011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로서 학생들을 배려했다. 이에 따라 세계수의과대학학 생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교육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2011년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최근 의학과 수의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개념은 '학생중심학습(student-centered learning)'이다. 학습의 주체로서 학생의 요구,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들이 평생을 통해 전문가로서 자기 중심 학습을 계속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역할이 되었다.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이 속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와 비교가 예전에 비해 훨씬 수월해졌다. 이는 학습자로서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 요구가 보다 구체적이고 그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는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Public Health Initiative<sup>7)</sup>가 구성되었다. 졸업생의 대부분이 임상분야로 진출하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공중 보건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이 발표를 들으며 약간은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수

7) Wendela Wapenaar, Experiences teaching Veterinary Medicine a different way at Nottingham, WCVE 2011 발표문 참조.

의학 교육개선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생각이 일선의 수의사들, 또는 일부 교수진들에 제한되었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요구가 학생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교육자들이 그만큼 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소통이 교수진이나 학교를 거치지 않고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한 교육 개선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만약, 이들의 질문과 요구에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는 수준이 된다면, 교육자와 선배로서 매우 난처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처할 것은 물론이다.



▲ <그림 7> 오스트리아의 Public Health Pool 소개

### 수의학 교육, 우리 모두가 이해당사자

지난달 한국수의학교육학회에서는 사회가 원하는 의사상이 숙련된 의사, 친절한 의사, 윤리적 의사, 사회적 리더로서의 의사로 점점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더불어, 의사 개인 스스로는 '행복한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가 있다. 이는 수의학 교육에도 마찬가지로의 상황이다. 전문가로서 내 일에 자부심이 있고, 내가 수의사로서 마주치는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수의사가 된다는 것은 분명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수의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수의과대학은, 수의사 단체는 환경과 자원과 다른 이들의 비협조를 이유로 머뭇거릴 수는 없다. 개인 수의사 역시 이런 의무에서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다. 전문직인 우리는 업무 환경에서 교육자로서 개개인이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후배 수의사들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동물 보호자 및 일반 대중에게는 동물의 질병과 일상에 대한 교육을 담당해야하며, 다양한 수의학 관련 이슈에 대한 일상적인 상담 또는 교육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진부한 표현이지만 교육을 개선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의과대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수의사의 정체성과 사회와의 소통, 더 나아가 수의사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의학 교육에서는 우리 모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 